

#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특성 연구

권 정 숙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Property of Post-Structuralism in Fashion Illustration by Deleuze

Jung-Sook Kwon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4. 1. 19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ought systems of post-structuralism by Deleuze and digital culture which is the core topic of social and cultural discussion. And this study also aims to grasp the diversity and movable thinking shown in fashion illustration from the aesthetic thought systems of post-structuralism theory by Deleuze.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s to ascertain the concrete representation characteristics and its significance of fashion illustration by analyzing works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theory.

What are discuss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post-structuralism which supplies the theoretic basis for figuring out the principles of diversity and movable thinking.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 structure and movable individuality of Deleuze who is a representative scholar of post- structuralism.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 to which the principles of post-structuralism, derived from the aesthetic theory of Deleuze, was applied.

Key words : fashion illustration(패션 일러스트레이션), post-structuralism(포스트구조주의),  
Deleuze(들뢰즈), Nomadic speculation(노마드적 사고), diversity(다양성)

## I. 서론

현대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한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의 영향은 인류를 '호모 디지피엔스(Homo Digipiens: 디지털 문명에 적응된 사람들)'로 정의하는 새로운 인류학적 현상을 낳았다.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적 진보 등이 이뤄낸 디지털 생활 환경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주체를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sup>1)</sup>이라 부른다. 디지털 문화 현상들은 단순히 기술적, 과학적 도약의 차원에서 이해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유동성으로 대표되어지는 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중요한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사고의 경계 확장과 다원화를 통하여 끊임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해석하기 위한 사유체계는 그 시대마다 존재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와 방법에 의해 연구·분석되어 왔다. 오늘날 이와 같은 디지털 문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사유체계로서 포스트구조주의의 개방적 사고 구조와 유동적 개체에 대한 관계성의 개념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95)의 미학 이론으로 대표된다. 이전 시대의 절대적 질서에 대한 이원론적 가치는 혼돈의 질서라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내세우며 새로운 사유의 추구를 시도했고 혼돈이나 모호함을 포함할 수 있는 들뢰즈의 미학 이론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정보화 시대의 유력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매체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한 패션메시지 전달매체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작가의 독창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표현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표현경향의 결과로 대표되는 다의성(多義性)과 애매모호함의 개념은 지배적인 전통적 사유가 모호한 대상으로 여기고 도외시했던 반면,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작자인 들뢰즈는 자신의 주요한 사고 영역으로 채택하고 중요한 미적 원리로 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사유체계와 현대 디지털 문화의 관계성을 고찰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

는 다양성과 유동성의 개념을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체계 내에서 새로운 미적원리로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작품분석을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체적 표현원리와 해석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첫째, 현대 디지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성과 유동적인 변화의 원리를 사유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정의와 디지털 문화와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둘째,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작자인 들뢰즈의 개방적 구조와 유동적 개체에 대한 관계성을 고찰하고, 셋째, 들뢰즈의 미학이론을 중심으로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의 원리가 적용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특성과 미적 가치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 방법과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연구 방법에서는 철학, 사회학, 미학, 패션, 예술 관련 이론서와 선행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포스트구조주의 사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 연구와 작품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작가의 개성과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미지 표현내용과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의 작품집, 서적, 잡지, 패션 관련 잡지,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포스트구조주의의 현대적 의미

#### 1) 디지털 유목민

현대사회는 후기 산업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하이테크 미디어는 인간의 외적 능력을 확장하는 기계중심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내적 능력을 확장시켜 또 다른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내적 동력으로써 우리 생활전반을 지배하는 디지털 사회를 탄생시켰다. 디지털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

월하는 동시에 현실세계의 시간과 공간은 디지털로 압축되어 사이버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전송되고 재구성되어져서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디지털 사회는 다양성과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유동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생산과 소비, 유통구조를 포함하여 인간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였다. 디지털 문화는 합리주의가 이끌었던 근대 모더니즘의 사고와 산업 사회의 대량생산과 표준화를 벗어난 개성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에 주목하게 되는 탈근대의 주체로써, 근대적 구조의 해체를 가져왔다.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적응력으로 인해 문화인종, 국경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탈공간성을 갖는 현상이 있으며, 감정개방에 대한 이중성을 갖게 되고 호기심이 많아지며 감각적이고 즉시적인 것을 원하는 특성을 갖는다. 디지털 문화의 현상은 먼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그물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고정된 관점이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유동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추세는 물리적인 생활 영역과 행태뿐 아니라 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생활의 방식과 범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맥루한(Mcluhan)<sup>2)</sup>이 언급한 인간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전시대에 대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현상의 특징들은 개체와 구조간의 관계성과 개방적 사고로의 개념적 전환의 특성을 가지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2)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포스트구조주의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을 자족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구조를 가진 의미 체계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 행위와 그 결과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의 체계를 분석하는 구조주의<sup>3)</sup>에 가치체계의 근간을 두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연장도, 완전한 배제도 아니며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그 내부에서 해체 또는 탈구축<sup>4)</sup>하는 것이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면서 요소간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힘의 범주( 권력, 욕망, 카오스, 차이, 무의식 등)를 사유하고 구조주의가 다루지 못했던 신체, 시간, 주체화, 사건, 단절, 우연 등을 다룸으로써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sup>5)</sup>하고자 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자들과 달리 인간 행위나 그 행위에서 비롯된 모든 현상에서 추상적 구조나 체계로 파악하려는 구조화된 공식 언어에 반기를 들고 의미의 역동적 생성과 유동적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하며 이성중심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시·공간적으로 개방된 텍스트 안에 상호작용 하는 의미의 무한한 움직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디지털 사회의 근대 주체로부터의 이탈과 구조의 해체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유동적 사고와 경계의 확장,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sup>6)</sup> 포스트구조주의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상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내재된 고정된 의미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다원화된 의미와 다양한 비논리적 영역에 대한 확장된 사유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주의의 구조체계에 대한 극단적 반발로 모든 구조를 해체하려는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시도와 혼돈과 차이의 철학에서 개념들의 창조를 이끌어내는 들뢰즈의 실천과 더불어 후기 바르트(Roalnd Barthes)의 문학이론과 문화이론, 푸코(Michel Foucault)의 사회이론, 라캉(Jacques Lacan)의 심리분석이론,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페미니즘 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의 연구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모두는 절대적 진리, 영원불변한 실재,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원리들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오히려 그 신념들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자들 중에 혼돈과 차이의 철학에서 개념들의 창조를 이끌어내는 들뢰즈의 이론은 '지성의 지휘 아래 복무하는 감성의 세계'라는 칸트적 인식을 역전시켜 감성적인 것을 개념적인 것보다 우월한 위치로 파악하고 플라톤주의로 대변되는 코스모스 아래 카오스를 가두어 놓

는 재현과 동일성의 인식을 파괴하여 카오스와 부조화, 차이에서 오히려 생성과 힘을 발견하는 긍정의 세계를 제시<sup>7)</sup>하며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 2.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 이론

들뢰즈는 전통 철학에서 무시되었던 '감각'과 '예술'의 지위를 높이고 항구적으로 변화하는 생성과 다양성의 감각적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하나의 단일한 인식틀이 지배적이었던 모더니즘의 인식에서는 '차이'가 결핍된 것, 비정상적인 것, 중심을 벗어난 주변적인 것을 의미하였다면,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차이'는 동일성과 반대되는 특이성, 개별성의 요소로서 인식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를 극복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능케 했으며 리오타르의 표현처럼 우리의 감수성이 차이를 지각하고 비결정적인 것<sup>8)</sup>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제공하였다. 차이를 발견하고 형이상학적 진리와 존재에 대해 해체하고 파괴하는 데리다의 '해체론적 방법론'과는 달리 들뢰즈는 무한히 생성중인 진리에의 의지와 의미를 생성하는 개념을 창조하는 '생성론적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들뢰즈의 저서 「반 오이디푸스」에서는 욕망을 다루었고, 「천 개의 고원」에서는 다양한 욕망의 배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목민적 사유를 설명<sup>9)</sup>하였으며, 「영화」에서의 철학적 대상은 이미지와 사유의 관계<sup>10)</sup>였다. 포스트구조주의 이전의 인식에서 욕망은 단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유동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 흐름이며 이미지는 모호함과 다의성을 가지는 규정하기 힘든 유목적 사유의 개념이었다. 들뢰즈는 지배적인 전통적 사유가 모호한 대상으로 여기던 욕망과 이미지를 자신의 주요한 사고 영역으로 채택하였고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 Bacon)의 작품분석서인 「프란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sup>11)</sup>에서는 회화 자체의 생성적인 감각 논리를 발견하였다.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목적, 시뮬라크르/사건, 표면 효과의 계열화의 사유는 구별되어지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생성을 형성하는 진화과정의 인식 특성을 구분한 것이다.

### 1) 유목(Nomad)적 사유

유동적 문화에 의해 사회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모드인 코드화를 벗어나 탈코드화 되고 비규정화 되고 있다. 이전시대의 절대적 질서에 대한 숭배는 혼돈의 질서라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내세우며 새로운 사유의 추구를 시도했고 혼돈이나 모호함을 포함할 수 있는 유목적 사고<sup>12)</sup>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들뢰즈는 이러한 유목민적 유동성을 바로 생성의 운동이<sup>13)</sup>라 하였다. 이러한 생성의 운동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내부로부터 탈주하여 외부로의 이탈을 꿈꾼다. 중심을 갖지 않고 편재하는 형태로 퍼져나가는 네트워크의 형상이 들뢰즈가 노마들로지(Nomadology)라 정의하는 어떤 중심과 좌표에 준하여 고정화되지 않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변화양태를 표현하는 유목적 사유체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들뢰즈가 지향하여 표현하는 다양체적인 식물유형, 사유에 있어 다양성에 의한 탈구조화인 '리좀(Rhizome)적 구조'는 해체론의 한계와 단절을 극복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통한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사유를 가능케 하였다. 창조성과 생성적인 사유는 비고정적, 가변적인 유목적 사유에 의해 개방적이고 혼성(混性, Hybrid)적인 특성을 지닌다. 혼성은 우리 삶의 기저에 존재해 온 사고이며 행동양식으로 일체의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차원을 꿰뚫어 보는 직관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들뢰즈는 이러한 혼성을 분열과 고립 속에 형성되는 조형적 특성에 부응하며 개체들의 차이와 모순을 긍정하는 이접(移接)적 종합<sup>14)</sup>이라 부른다. 이접적 종합은 시각예술에서 다양한 내용 및 방법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조형 특성을 형성하였다.

### 2) 시뮬라크르(Simulacre)/사건의 사유

운동과 생성들은 표현하는 시뮬라크르의 사유는 리좀과 유목을 포함한 사유의 핵심이다. 시뮬라크르라는 말은 사건과 거의 동일한 말로서 순간적인 것,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 자기 동일성이 없는 비실체를 의미한다.<sup>15)</sup> 변화의 움직임은 고정되어 법칙을 따르는 의미가 아닌 변화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운 사실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킨다.<sup>16)</sup>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의 범주가 순

간과 우연에 대한 생성적인 가치를 의미화 시켰다. 사건이란 그 이전이나 이후의 현상들과 관련되어 의미 부여가 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고정된 ‘~임’의 명사적 측면이 아닌 ‘~됨’의 동사적 측면을 지닌 것이다. 사건의 예로 다비드(1748-1825)의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살펴보면, 커다란 궁전에 사람들, 가구, 화려한 옷,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아 직접 쓰러는 나폴레옹의 장면의 묘사에서 ‘대관식’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으나 거기에서 사물도 성질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나폴레옹의 왕관이 머리에 없지는 물체적 운동의 표면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의미란 자연과 문화가 접하는 바로 그 접면(接面), 혹은 형이상학 표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 혹은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체계가 개편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건 자체로는 무의미이지만 형이상학적 표면의 맥락에서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시물라크 사유의 의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디지털 문화의 영향으로 장소를 중심으로 했던 공간적 사고보다 지속적인 흐름을 유발하는 시간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비실체의 형상화를 통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들뢰즈의 사유의 중심에 있는 시물라크르(Simulacre)/사건의 과정은 이러한 다변적이고 다양체적인 식물유형인 리좀(Rhizome)<sup>17)</sup>처럼 펼쳐져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와 다양함의 생성 과정을 사유하는 것이고 개체-구조간의 관계성을 유동적인 표면효과로 계열화시킴으로써 열린 사고<sup>18)</sup>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미적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3) 표면효과와 계열화(La sérielle)

노마드적 개체들은 표면효과와 계열화를 통하여 의미를 지니는 시물라크르로 발전한다. 계열화란 현대사상이 발굴해 낸 핵심 개념으로 자연과 문화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표면화되어 물리적인 표면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건들과 계열화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띤 사건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표면효과는 플라톤의 이원론<sup>19)</sup>과 반대되는 스토아학파의 이원론적 사고<sup>20)</sup>에 바탕을 둔 것으로, 리얼한 실체를 물질이라

하고 물질이 만들어내는 운동으로서 표면효과는 비물질적인 것들의 표면효과로 표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면효과와 표상들은 연속적인 다른 효과들과 계열화됨으로써 그 물질 자체가 가진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 비물질성을 띠는 생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질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의 이행은 응축(凝縮) 작용에 의한 연결, 계열 사이의 순환과 용해(融解)에 의한 이질적 계열간의 공존과 상호 관련<sup>21)</sup>, 공존하는 계열들의 분화(分化)와 재배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원화된 사회 현상들은 하나의 표면효과로 떠올라 탈물질의 사건을 만들어가며 의미화 된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계열의 개념은 내적/ 외적, 내용/형식 요소들을 하나의 표면 위에 부상시키는 표면효과를 통하여 열린 구조로 표현 영역을 확장시켰다.

<표 1>은 디지털 문화의 사유 특성과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들뢰즈의 이론에 나타나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사유적 특성을 범주화하였다.

<표 1> 디지털 문화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구조주의의 상관성

| 디지털 문화의 사유 특성               | 포스트구조주의                       | 들뢰즈의 이론   |
|-----------------------------|-------------------------------|-----------|
| 유목적 문화                      | 유동성<br>개방성<br>생성의 운동          | 유목적 사유    |
| 시간,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흐름의 공간      | 순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시간과 우연         | 시물라크르의 사유 |
| 자극적인 감각을 추구                 | 권력, 욕망, 카오스, 차이, 무의식 등의 힘의 개념 | 사유        |
| 다원화된 문화 현상 상호 작용을 통한 타자의 수용 | 열린 구조의 다양성<br>주체 개념의 해체       | 표면효과와 계열화 |

III.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적 특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지속적인 패션정보의 변화와 작가의 개성 표현 증가 및 다양한 시각매체를 접하고 있는 대중들의 설득을 목적으로, 단순한 ‘패

션의 재현을 벗어나 과거의 보수적인 미적 원리로 해석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전 경향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가치체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의 디지털 문화의 특징인 다양성과 유동적 사고들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작업하고 수용하는 작가와 수용자들에게, 열린 사유로의 미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를 제공한다.

### 1. 혼성적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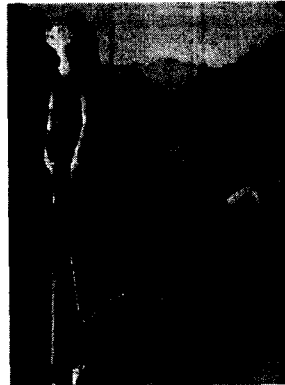
혼성적 종합은 포스트구조주의의 구조와 유동적 개체의 개방된 관계가 갖는 역동성을 통해 개별적인 요소나 구성인자의 차이와 개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한다. 이러한 사유의 양태는 들뢰즈의 식물 유형인 리즘으로 설명되며, 리즘적 구조는 다양성과 유동적인 변화의 영역으로 전이되어 생성과 창조의 조형 원리를 제공한다.

#### 1) 동시성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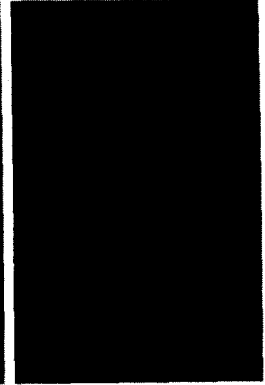
표현 대상의 형상이나 상호관계를 한 화면에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다중 시점으로 나타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동시성의 표현은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무작위로 조합하는 콜라주<sup>22)</sup> 방식과 표현 단위들을 겹치고 가림으로써 시선을 분열, 집중시키는 중첩의 방식이 있다. <그림 1><sup>23)</sup>은 원경의 자연 사진에 그림을 콜라주하여 사진과 그림이라는 다른 표현 영역을 혼합하고 드레스 자락을 끌면서 걸어오는 가상의 시간성을 함축된 한 화면에 표현한 동시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2>는 단색조의 배경에 윤곽이 다른 단면같은 형상의 인물을 삽입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후경에 간접적으로 향수병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시선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선명도의 차이에 의한 인물에서 향수병으로의 지연된 시선의 흐름과 인물과 향수병이라는 개체간의 인식 교란을 의도하여 수용자의 인식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2) 이질적인 결합

개체간의 비경계적 사고에 의하여 기억에 친숙한



<그림 1> Cliff Perches, 1998. Millennium Mode



<그림 2> Sara Singh, <http://www.art-dept.com>

원형의 개체를 원래 위치와 관계에서 분리·이동하여 낯설게 전환함으로써 지각자의 인식 결정을 유도시킨다. 단편화된 이질적인 다양함은 포스트구조주의의 유연한 구조 내에서 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거나 개체간의 새로운 대립 관계를 형성시킨다. <그림 3>은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생물체의 유형과 인체를 결합한 화면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여 시각적 신선함을 부여하였다. <그림 4><sup>24)</sup>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차이를 연결하여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새로운 의미의 생성이 아닌 병치되는 차이점들 간의 모순과 갈등에 의해 터무니없는 기이함을 유발하여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였다.



<그림 3> Tanya Ling, 2004 Plus 81, Vol. 23



<그림 4> Ruben Toledo, 1996. Style Dictionary

### 2. 비실체의 형상화

플라톤의 이원적 사고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비실

체의 사유는 이제 표면효과로 부상하여 모든 물리적인 것들의 원인으로써 의미를 부여받는다. 모든 가능한 탈물질의 개체들은 유동적인 운동, 변화 등의 시간을 사유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의미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 아닌 의미를 생성하는 힘으로 그 이후나 이전의 현상들과 관련되어 의미를 형성한다. 고정되지 않은 진행의 동사적 측면을 지닌 것을 들뢰즈는 시뮬라크르 혹은 사건이라 정의한다.

1) 순간의 포착

의도된 작업이 아닌 순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에서 비가 시적이고 비실체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각의 미적 인식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림 5>는 눈 오는 날,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두 인물을 표현한 이 작품은 눈과 스케이트 타는 사람의 운동감과 속도감이 지각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였다. 실제의 상황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힘든 이 순간이 계열화에 의해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가는 추측하기 힘든 단순한 '순간'일 뿐이다.

2) 계열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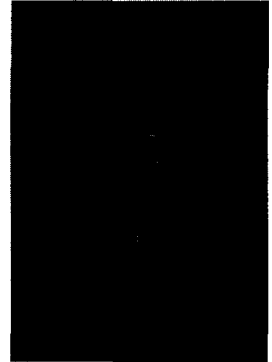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계열적 방법은 표면 위에 부상되는 시뮬라크르의 표면효과와 계열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의미 있는 생성의 원리로 적용된다. 들뢰즈의 이론에서 계열의 개념을 적용하여 응축, 융해, 상태 변화, 특이성(전환점)등의 배열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림 6>은 보이지 않는 어찌면 문밖의 검은 공간에서 뺏어나온 손이 앞으로 기울어진 인물을 지탱하고 있는 순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전이나 이후의 상황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로 계열화될 수 있다. 문밖에서 있는 인물을 검은 손이 잡고 넘어뜨리려는 상황, 이와는 반대로 앞으로 넘어지려는 인물을 지탱하는 검은 손 등 다양한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감각의 다양한 층위

들뢰즈는 예술을 지각과 정조(情調-Affect)의 복



<그림 5> Lorenzo Mattotti, 1997, Lorenzo Mattotti 2000



<그림 6> Whitehurst, <http://www.art-dept.com>

합체인 감각의 집합체들을 창조하는 것<sup>25)</sup>이라고 하였다. 그는 감각의 표현에 있어서 느끼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 긴밀한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 개별 감각기관에 의한 지각이 아닌 감각기관들의 '원초적 통일성'에 이루어지는 감각의 다양한 층을 주장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되어지는 감각의 다양한 층위들은 공통감각들의 소통과 구성에 의해 감각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적 고유함을 부여한다.

1) 감각들의 상호작용

들뢰즈는 모든 감각 영역에 걸쳐지는 어떤 생생한 힘을 '리듬' 또는 '파동'이라고 부른다. 감각들의 소통에 의해 시각 이미지를 넘어서는 다양한 감각 이미지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7>은 신비로운 우주로 배경으로 창백한 인물과 붉은 색의 머리와 화장, 메니큐어, 그리고 호피무늬 원피스, 짐승이 감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와 인물에서 체감되는 차가움과 휘몰아치는 파도의 파동과 소리, 한 방향으로 날리는 붉은 머리에서 작용하는 부분적인 바람의 힘이 체험된다.

2) 디아그람의 표현

들뢰즈는 서구 조형 예술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한 가지는 이집트의 저부조로 대표되는 '촉지적 공간(Espace Haptique)'이고 나머지는 비잔틴 예술로 대표되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에 의한 '광학적 공간(Espace Optique)'이다. 들뢰즈는 캔버스를 손으

로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과 같은 손에 의한 자유로운 표시인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축지적인 것과 광학적인 것의 이원성을 극복한 '눈의 축지적 시각'을 발견<sup>26)</sup>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물감을 흘리거나 뿌리고 두드리는 등의 자유로운 흔적들로 인식에 지배받지 않는 예술적 자율성<sup>27)</sup>을 표현한다. <그림 8>은 검정색 원피스의 농담표현과 검정색과 배경의 붉은색의 흘러내린 흔적의 우연적 효과에서 묶은 수채 물감의 담백함과 화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감의 가벼운 운동감이 느껴진다. 이와 동시에 배경과 인물의 자연스러운 상호친밀감과 오른쪽 화면 밖으로 확장되는 시선의 흐름을 감각하게 한다.



<그림 7> Richard Grey,  
[Http://www.art-dept.com](http://www.art-dept.com)



<그림 8> Tanya Ling  
 1999, Joyce (HongKong)

#### 4. 유기적 생성의 공간

들뢰즈는 감각으로 번역되는 "sens"란 단어가 '방향'이나 '양식'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양식/일방향이란 한 가지 계열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사회나 그 구성원이 옳다고 믿는 사회적 양식을 '통념(Doxa)'이라고 하였다. 디지털 사회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동시성의 사유인 '역설(Paradoxa)'<sup>28)</sup>을 가능케 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 작품의 주제가 표상하는 것이 하나의 단일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수용된다. 작품은 작가와 관람자의 양방향의 동시성의 사유가 생성되는 유기적 생성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중읽기와 새로운 의미들의 생성 공간인 작품은 다양성을 수렴하여 주제와 배경, 부수적인 것들의 위계가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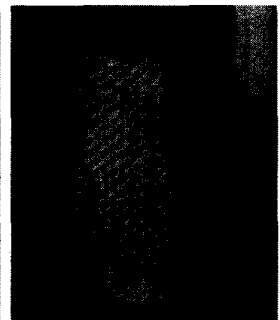
해진다. 역설을 통한 동시적인 복수성을 인정하면서 주제 이외의 주변적인 것들에의 의미 부여가 새로운 미적 원리로 제시된다. 이러한 전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가 의도적으로 왜곡·과장·축소되어 새로운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화면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1) 역설적인 방법

역설은 일정한 한 방향에 대한 거역이 아니라 양방향의 동시다발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인식은 다양하고 예측 불허의 생성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림 9>는 주제와 배경의 위계질서를 깨고 도치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자유로운 붓놀림의 흔적으로만 주제와 배경의 경계를 구별하였다. <그림 10>은 인체의 윤곽과 입체감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배경과 색상대비가 선명한 익숙한 원피스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형태의 요소를 색채로 은폐하여 평면적인 주제 표현으로 시각적 자극과 화면의 긴장감을 부여하였다.



<그림 9> 정혜선, 1995,  
 Fashion Illustration Korea



<그림 10> Francois  
 Berthoud, 2000, Visionaire'S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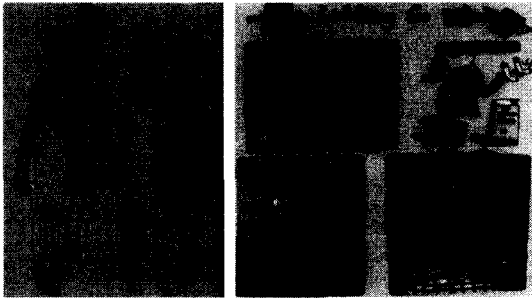
#### 2) 시퀀스(Sequence)의 표현

관찰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요소간의 새로운 관계성의 생성으로 애니메이션의 효과에서 일반화된 연속적인 장면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화면 전체의 구조 내에서 개별 개체들을 단편화된 이미지로 분해하고 개체간의 상관성에 의한 유동적 흐름에 의해 연속적인 장면 이미지의 인식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11>은 요소들을 중첩시켜 반복하여 인물들이 걸



어오는 듯한 운동성을 표현한다. 이 움직임은 한번의 행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불안하게 반복되는 시각의 착시 효과를 연출한다. 중첩되는 요소들 사이의 거리와 반복 횟수에 따라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림 12>는 애니메이션의 연속된 컷의 연상 이미지를 활용<sup>29)</sup>하여 서술적인 화면의 인식을 의도한다. 컷을 개체로 파악한다면 구조와 개체간의 관계는 독립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에서 개체 자체가 구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상호관련성에 의해 구조에 종속되기도 한다.



<그림 11> Hiroshi Tanabe, 1998, Visionaire'S Fashion 2000,

<그림 12> Sara Schwartz, 1999, <http://www.saraschwartz.com>

사유, 표면효과와 계열화의 이론을 중심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포스트구조주의적 표현 특성을 혼성적 종합, 비실체의 형상화, 감각의 다양한 층위, 유기적 생성의 공간으로 분류하고 실제 작품에서 표현되어지는 방법과 효과를 분석한 표이다.

#### IV. 결론

현대 디지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인 다양성과 유동성의 원리를 사유하는 포스트구조주의는 기존의 서구철학에 대한 도전으로 지식, 언어에 관한 새로운 이론 및 인식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변화의 양상을 사유하는 열린 구조와 역동적 사고의 사유체계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과 해석에 있어서 고정된 하나의 인식체계가 아니라 다원화되고 생성적인 표현과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들뢰즈의 감각이론은 고정된 기준이나 규범의 틀을 부정하고 새로움과 창조라는 가치에 대한 긍정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미학 이론으로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이나 모방이 아닌 개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다양성과 유동적인 의

<표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적 표현 특성과 효과의 분석

|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 이론 | 표현 특성      | 표현 방법     | 표현 효과                     |                       |
|------------------|------------|-----------|---------------------------|-----------------------|
| 유목적 사유           | 혼성적 종합     | 동시성의 표현   | 콜라주, 분열, 중첩               | 수용자의 인식 효과 상승         |
|                  |            | 이질적인 결합   | 개체의 위치 이동, 전환, 대립, 병치     | 화면의 긴장감과 흥미유발         |
| 시물라크르의 사유        | 비실체의 형상화   | 순간의 포착    | 우연, 순간 등의 시간성 표현          | 미적 인식 영역의 확장          |
|                  |            | 계열적 방법    | 응축, 융해, 상태 변화, 특이성        | 작품내에서 개체간의 새로운 의미 생성  |
|                  | 감각의 다양한 층위 | 감각들의 상호작용 | 공감각적 표현                   |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예술적 고유성 부여 |
| 표면효과와 계열화        | 유기적 생성의 공간 | 디아그람의 표현  | 우연적 효과, 파동, 리듬의 표현        | 예술적 자율성 획득            |
|                  |            | 역설적인 방법   | 주제와 배경의 도치<br>색채나 선 등의 강조 | 다양하고 변화하는 의미의 생성      |
|                  |            | 시퀀스의 표현   | 중첩, 반복, 연속적인 나열, 스토리 전개   | 표현 요소간의 새로운 관계성 형성    |

<표 2>는 들뢰즈의 유목적 사유, 시물라크르의 미 생성의 표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적 근거를 제

공하였다.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경향과 해석의 가능성을 다의성(多義性)과 애매모호함으로 파악하고, 비규정적인 개념적 특성들을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 영역에서 다양성과 유동성이라는 중요한 미적 개념으로 고찰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구체적 표현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고정된 이원론적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유동적 사고의 특성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비경제적 사고와 모호함의 질서를 포함하는 조형 원리로 파악되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과 대립적인 요소들의 병치 등의 방법들에 의한 혼성적 종합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품에서 다중 시점인 동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무작위로 조합하는 콜라주와 표현 단위들을 겹치고 가리는 반복과 중첩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단편화된 이질적인 개체들이 결합하고 작품 내에서 재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거나 개체간의 새로운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이질적인 결합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혼성적 종합의 표현 방법은 수용자의 인식 영역을 확장하고 화면에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변화와 생성을 표현하는 시뮬라크르의 사유는 회화의 재현성을 극복하는 비실체의 우연, 힘, 사건 등을 형상화시켰다. 작품과 표현 개체의 탈물질적인 표현효과로써 물성을 벗어난 동적인 상태에 놓임으로 인해 의미가 변화하고 내재된 가능성을 분출시키며 자유롭게 반응하게 되었다. 시간성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우연, 예측불허의 순간을 포착하거나 상태의 변화 등의 표현 방법으로 미적 인식 영역을 확장시키고, 감각의 다양한 층위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각간의 소통과 우연한 표현 흔적 등이 표현된 작품에서 화면과 개체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예술적 자율성과 고유성을 제공하였다.

셋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고정된 화면이 아닌 개체간이나 내부와 외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성을 수용하는 유기적 생성의 공간으로 파악되어진다. 안과 밖, 주제와 여백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주제를 벗어난 타자(他者)성의 관심으로 표현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역설과 도치의 방식으로 화면의 시각적 긴장감과 환영(幻影)적 시각 공

간을 창출하였다. 연속적인 장면의 표현을 통하여 시간성을 극복하고 장면사이의 연상 작용을 통하여 서술적인 스토리를 전개시키거나 의도된 장면들의 고립을 통하여 주제를 부각시키는 개체간의 새로운 의미 관계를 형성하였다.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작가와 수용자들에게 '다양성'과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비규정된 혼돈과 모호함은, 포스트구조주의 의미체계 내에서 중요한 조형적 표현원리와 해석방법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를 시각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 언어, 철학, 사회과학적 인식의 영역에서 사유되는 포스트구조주의로 확장시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손연기 (2003. 7. 29). 디지털 신인류. 디지털 타임스. 자료검색일 2003. 12. 23. 자료출처 <http://www.dt.co.kr>
- 2) McLuhan, M. 김진홍 역 (1995). 미디어는 맛사지다. 서울: 열화당, p. 8.
- 3) 김종일 (1999).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에 따른 건축형태의 해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0.
- 4) 아사다 아키라. 이정우 역 (1995).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새길, p. 7.
- 5) 김옥동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p. 12.
- 6) 최지운 (2002).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와 건축의 변화된 구조-개체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4.
- 7) 이종도 (2004. 3. 31). 들뢰즈의 세기 맞는 한국 철학계. 한국일보
- 8) 강수미. 앞의 책, p. 24.
- 9) 민성원, 최유진 (1998). 현대사상. 서울: 도서출판 우석, p. 339.
- 10) 박성수 (1996). 프레임, 쇼트, 몽타주 : 들뢰즈의 '시네마'에 대하여. 문화과학, 9, pp. 2-5.
- 11) Deleuze, G. 하태환 역 (1995). 감각의 논리. 서울: 민음사.

- 12) 민성원, 최유진. *앞의 책*, p. 343.
- 13) 들뢰즈는 텍스트들의 내부로 개입하여 균열을 발견하는데서 나아가 균열의 발생지점에 여러 갈래의 분기가 나타나고 여러 갈래의 선은 내부로부터 탈주하여 외부로 지향하고 있다. 그는 균열을 발견하고 해체하려 하는데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면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개념들이 차용되어 반복되며 차이를 동반하고 새로운 여건 하에 처하면서 새로운 생성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 들뢰즈는 이러한 생성의 운동을 유목이라고 부른다. - 이진경, 신현준 외 (1995). *철학의 탈주*. 서울: 새길, p. 56.
- 14) Deleuze, G. (1988). *Magazine littéraire*, p. 17. 강수미 (1999). p. 44 재인용.
- 15) 이정우 (1999). *시뮬라크의 시대*. 서울: 거름, p. 44.
- 16) Deleuze, G. 하태환 역 (1995). *감각의 논리*. 민음사: 서울, 11장 참조.
- 17) Deleuze, G. & Guattari, F. (1987). *Introduction: A thousand platea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 5; 강수미 (1999). *후기모더니즘의 회화성에 대한 해체와 의미생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재인용.
- 18) 김광길 (1998).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비평 연구*. 경기대학교 인문논총, 6, p. 20.
- 19) 플라톤은 가상의 세계인 현상계와 이상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나눈다. 현상계는 변화하는 세계이며 경험적 현실세계, 감각세계이다. 이에 반해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불변의 세계이며 초월적 실세계, 초감각세계이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체계 내에서 바라볼 때, 그림 속의 인물은 이데아의 모방인 현상계의 사물을 다시 한번 모방한 결과 생겨난 것이다.
- 20) 스토아학파는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물체적인 것으로서, 물체와 그것의 성질, 관계, 능동/수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물체의 표면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다. 비물체적 성질들은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사건'들의 존재이다. 예를 들어, 나무의 푸름과 달이 푸르러지다는 부정사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푸름'은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되는 반면에 '푸르러지다'는 사물의 성질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말한 것의 속성으로서 표면에서의 비물체적 사건이다. Deleuze, G. (1969). *Logique du Sens. Les Editions de Minuit*, p. 13.
- 21) 박성수 (1997). *철학적 사유와 영화적 이미지의 연관성. 시대와 철학*, 8, p. 161.
- 22) 계간미술편 (1981).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미술사, p. 173.
- 23) Wolf, R. (1999). *Millennium mode: Fashion forecast from 40 top designers*. New York: Rizzoli, p. 19.
- 24) Toledo, R. (1996). *Style dictionary*. Abbeville Press, Inc
- 25) Deleuze, G. 이정임, 윤정임 역 (1991).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술사, p. 154.
- 26) Deleuze, G. (1991). *앞의 책*, p. 67.
- 27) 김상민 (2002). *"재현의 논리"에 대한 G. 들뢰즈의 비판과 그 극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7.
- 28) 이정우. *앞의 책*, p. 188.
- 29) 차재욱 (1995). *현대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만화미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1.